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7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자치경찰정책과	담당자	• 공직감사팀장 김선헌 ☎458-7265 • 담당자 김인철 ☎458-7268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자치경찰과 현장 경찰관들 한자리서 다양한 의견 나뉘

- 3.14~16.(3일간) 현장 경찰관들과 간담회,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키로 -
- 경찰관서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등 토의 및 의견수렴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지역사회의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 관내 경찰서에서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경찰관들이 함께 모여 토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경찰관서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치안환경 변화에 맞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 안전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자치경찰위원회·협력단체 등 지역사회 협업·소통 △시민 정책참여를 통한 체감안전도 향상 등 다양한 시책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자치경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 출범이후 추진해 온 자치경찰 1호(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2호(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인천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치안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및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범죄예방 관련 감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범죄예방 정보 전달 등 주민들의 수요(Needs)를 고려한 특화된 서비스 발굴·시행으로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송도, 청라, 검단 등 신도시에 걸맞는 선진화된 방법 시설물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시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불식시키자고 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체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과 각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천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찰관서별 주요시책 이행도에 대해 치안성과에 적극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

